

■ 서평 ■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

Peter Sing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4,
Second Edition

Kyung-Hwan Oh

현대 철학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과의 소통 노력의 부재일 것이다. 현실의 문제를 철학적인 언어로 소화해 내는 철학 본래의 사명은 철학이 대학의 학문 분과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무시되어 왔다. 피터 싱어(Peter Singer)는 아마도 이런 조류의 가장 중요한 예외일 것이다. 신 공리주의(utilitarianism), 혹은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입장에서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를 논한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1975)이나 낙태 문제와 생명윤리에 대한 가장 명징한 분석인 『팽창하는 원: 윤리와 사회생물학 The Expanding Circle: Ethics and Sociobiology』(1981)은 현대사회가 직면한 윤리적 상황에 대한 철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다. 생명윤리에서 세계 빈곤의 문제는 최근의 저서 『당신이 살릴 수 있는 생명 The Life You Can Save: Acting now to end world poverty』(2009)에서 보여주고 있다. 2002년에 처음 출간되어 2004년에 증보 출판된 『하나의 세계 One 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에서 싱어는 점점 더 연결되어 가는 세계에 적합한 글로벌한 윤리적 시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싱어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더 이상 국민국가에 기초한 윤리적 실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연관된 세계 속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이 책에서 싱어는 지구화와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먼저 싱어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인간의 행위에 의해 기후가 변한다는 사실은 인간이 전 지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 준다”고 서술한다. 기후 변화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일어나는

사정은 흥미로운 철학적 상황을 유발한다. 특정 행위가 특정한 결과를 도출하지만 행위의 결과를 실제로 감내하는 것은 행위자뿐이 아니라 인간 전체이며 공해 유발 행위 자체가 경제적 이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공해 유발 행위가 경제적 이득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연료 절감 차량과 연비 높은 차량 사이에서 소비자의 선택은 경제적 이득과는 관계없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선택이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의 윤리적 선택은 전통적인 윤리학의 문제의식에서 해결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전 지구적인 시점으로 본다면 인간에 의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결국 공해 유발로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싱어가 탄소 배출권의 거래와 같이 이미 많은 논의가 진척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점은 실망스럽지만 그가 제기하는 시점의 이동이 가져오는 도덕적 내용의 변화는 시사적이다.

싱어가 다음으로 접근하는 주제는 WTO를 비롯한 세계 무역기구이다. 싱어는 이들이 경제적 이득을 다른 어떤 가치(환경, 동물권, 심지어 인권)보다 우선시하며, 국가 주권을 잠식하며, 비민주적이며 불평등을 주장한다고 본다. 무역 자체를 절대적인 선으로 보는 WTO와 같은 조직은 상품이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따라서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정을 통해 생산된 상품과 인권을 해치는 상황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윤리적인 접근이 새로운 전 지구적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만 그의 국가 주권과 전 지구적 경제 체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같은 책의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가 주권의 설명과 배치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경제체제가 어떻게 국가 주권을 잠식하는지, 또한 그런 상황을 전 지구적 윤리의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의 비민주성에 대한 주장은 윤리학적 입장에서 흥미롭다. 과연 지구화 정책의 다양한 결과를 '모든' 세계인이 동일한 수준으로 체험하는가? 만약 이들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면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대의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근원적인 비민주성을 고려한다 해도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표할 수 있을까? 국민국가를 제외한 대표성의 가능성은 존재하는가? 세계가 직면한 빈곤의 문제와 지구화가 전 지구적 빈곤을 재생산하는 현실 역시 이 전 세계 경제체제의 비민주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을

터이다.

싱어는 이어서 지구화로 복잡해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의 탐색에 나선다. 먼저 싱어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국제적 개입이 필요하고, 때에 따라 당위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는 이런 종류의 개입은 초국가적 조직(대표적으로 민주화된 UN)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싱어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국가(아마도 미국)의 전 지구적이며 윤리적 역할을 강조한다. 이 책 초판의 출간 연도가 2002년임을 감안한다면 그의 이런 기대는 곧 배반 당할 종류의 것이었다. 물론 싱어가 국가 주권의 미래에 대해서도 덕적인 환상만을 품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는 일관되게 국가가 민족주의적 틀을 벗어나 전 지구적 윤리의 주체로 국가 주권이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싱어는 윤리적 입장에서 국가만이 그런 윤리적 주체가 되어야 할 당위도, 현실적인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싱어는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국제 원조의 배분을 검증한다. 먼저 우리는 일 달러가 부자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전제를 이런 상황에 적용한다면 대단위의 사회적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공리주의적 체계를 한 국가 내부가 아니라 전 지구적 입장으로 확장한다면 극빈국에 대한 원조는 공리주의적 당위가 된다. 싱어는 이미 파기된 것으로 알려진 양적 공리주의를 민주적이며 전지구적인 방식으로 되살리고 있다. 결국 UN이나 WTO와 같은 다양한 국제기구가 전세계의 민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을 허용한다면 이들은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싱어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개인 행위의 차원에서 역시 이런 공리주의적인 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싱어는 분명히 충분히 '윤리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 윤리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먼저 가장 실용적인 측면에서 싱어는 이런 종류의 윤리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가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지 못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를 인정하면서 개인의 행위 차원으로 이 윤리성을 축소해 보자. 어떤 개인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위해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기준은 자신의 이웃이 될

것이다. 이웃의 개념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싱어의 시도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국민국가와 같은 제도적인 틀뿐 아니라 시민의식의 근원적인 전제를 재구성할 수 있을 때 성공적일 수 있을 것이다. 싱어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그가 파악하고 있는 지구화의 양상이다. 그의 지구화는 구조화되지 않은, 단순한 교류나 경제적 관계의 증대이다. 지구화라는 현상에 대한 단순한 해석은 단순한 해답을 내어 놓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삶의 전 지구적 양상에 대한 개인의 윤리적 행위와 인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구화의 문제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요원해 보인다.

싱어의 책은 분명 의미있는 시도이다. 지구화되는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 안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의 윤리적인 시점-그것이 반드시 공리주의일 이유는 없을 것이다-을 지구화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의 주장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가 파악한 지구화가 기존의 국민국가 체제의 확장과 교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마도 지구화의 복잡한 양상과 구조를 파악한 이후에나 새로운 윤리의 기초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khmithranthir@gmail.com